

통권 제 188호

강남, 라00943

2563
2019

06

불교이야기
계화이란 무엇인가 4



제물이야기
자연환경과 생명보존



절망에 담긴 이야기
큰손의 의붓면의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충지품

종조법설집

제2장 수행편 제3절 법시와 보시 p.162

팔위八危

팔위八危는 무엇인가. 관에 몰수沒收되고 도적에게 겁탈劫奪되고 불에 태우고 물에 유실漂失하고 원수와 빛진 사람에게 빼앗기고 농사가 잘안되고 장사가 손해되고 악한 자식이 노름에 없애는 이 여덟가지니라.
하루라도 좋게 쓰면 그날 중에 팔위가 침노하지 못하며 한달이라도 좋게 쓰면 그날 중에 팔위가 침노하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일년을 좋게 쓰면 일년동안 팔위가 침노하지 못하며 평생을 좋게 쓰면 평생동안 팔위가 침노하지 못하느니라.
하루 가운데 단시는 하루 가운데 고통으로 나가던 것이요,
한달 가운데 단시는 한달 가운데 고통으로 나가던 것이요,
一年 가운데 단시는 一年 가운데 고통으로 나가던 것이니라.
정시正時는 제득族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時는 윗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충지중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살다보면 20

그래도

희망 ing

이옥경



디딤돌 54

다산의

마지막 공부

지현 전수



차향기 66

한국 발효차와

중국 발효차(보이차)

김정애

04 불교이야기

10 마중물

14 겨울이야기

20 살다보면

26 향유

32 산책

34 아름다운 세상

38 마음의 등불

42 독자기고 1

46 함께 만든 100년

50 씨앗 한 알

54 디딤돌

58 새 이야기

62 거꾸로 보기

66 차향기

70 독자기고 2

72 결망에 담긴 이야기

74 뜻 바꾸기

76 되짚어 보기

78 컬러링 만다라세상

계학이란 무엇인가 4 화령 정사

지혜로운 방법 탁났한 스님

자연 환경과 생명 보호 법경 정사

그래도 희망 ing 이옥경

고난이 와도 강동현

난 나비가 아니었어요 김대곤

십선회향 묘원화 전수

부디 다음 밤 꿈에는... 홍명원

특별한 여행을 꿈꾸다 김정숙

선각자적인 안목을 가진 우당 이회영 선생 차성 전수

미신, 징크스는 없다 법상 스님

다산의 마지막 공부 지현 전수

소쩍새 Scops Owl 정옥식

우리는 샛길을 택한 이들에게 빛지고 산다 2 박현희

한국 발효차와 중국 발효차(보이차) 김정애

자석사 보살님들 봄소풍 갔어요 여순애

큰 선언의 뒷면에는 법일 정사

원력 회향발원심 廻向發願心 김재동

안온 安穩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두루 배워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행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모르는 것과 다를 없습니다.
마치 음식이야기를 풍성하게 하더라도
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글 | 능엄경에서



계학이란 무엇인가 4

화령 정사
불교총지중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주교



계의 형식과 종류(2)

대승불교의 시대가 되면 보살계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세세한 계율을 규정하지 않고 삼취정계(三聚淨戒)라는 대승보살이 지켜야 할 계법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삼취정계는 《범망경(梵網經)》이나 《영락경(瓔珞經)》등에서 설한 대승불교 독자의 계율로서 대승의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입니다. 여기에는 십율의계(十律儀戒), 십선법계(十善法戒), 십중생계(十衆生戒)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율의계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만드신 계율을 지키고 일체의 악을 모두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십율의계의 내용으로 열 가지의 중대한 금지사항인 십중대계(十重大戒)와 48가지의 비교적 가벼운 48경계(輕戒), 그리고 십선계(十善戒)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중대계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불살계, 훔치지 않는 불도계(不盜戒), 사음을 하지 않는 불음계, 술을 팔지 않는 불고주계(不酤酒戒), 타인의 죄나 잘못을 폭로하지 않는 불설과죄계(不說過罪戒), 자신을 칭찬하고 타인을 욕하는 것을 금하는 불자찬훼타계(不自讚毀他戒), 재물이나 법을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불간계(不慳戒), 화가 나서 상대가 사과해도 용서하지 않는 것을 금하는 불진계(不瞋戒), 불·법·승을 비방하지 않는 불방삼보계(不謗三寶戒)입니다.

십율의계는 이러한 십중대계를 지키는 것은 물론 48경계와 모든 계율을 지켜 악을 끊는 것입니다. 십선법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모든 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중생계는 일체의 중생을 완전히 감싸 안고 널리 이익을 베푸는 것입니다. 즉, 자비심을 바탕으로 모든 중생을 위해 힘을 다하는 이타행(利他行)을 십중생계라고 합니다.

십율의계와 십선법계는 스스로에 대한 계행이며, 십중생계는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십율의계는 악을 그치

는 지악에 해당되고, 섭선법계와 섭중생계는 행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라는 것은 지악행선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삼취정계에는 모든 계법이 포함된다고 하여 ‘섭’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이처럼 대승불교의 계율은 세세한 규정을 정하기보다는 대승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취정계는 지악행선이라는 계율의 제정 취지를 살리는 의미가 강하여 초기불교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엄격함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승불교가 아무래도 재가신도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여 승단에서 지켜야 할 율의 성격을 많이 배제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승보살계의 수계에는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 삼취정계를 지킬 것을 맹세를 하고 계를 받는 자서수계(自誓受戒)의 형태도 있었습니다. 즉 삼사칠중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도 스스로 참회하고 맹세하면 계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대승의 후기, 즉, 밀교 시대가 되면 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밀교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발보리심계라는 것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발보리심이란 보리심을

발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곧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대일경소》에 “백정(白淨)의 신심을 일으켜 무상(無上)의 보리를 구한다.”는 말이 있는데 무상의 보리를 기어이 성취하겠다는 신심을 일으키는 것이 곧 ‘발보리심’입니다. 발보리심이라는 말은 원래 대승불교의 보살도의 출발점이며 자리아타의 행을 하는 보살의 수행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발보리심에는 행원보리심(行願菩提心), 승의보리심(勝義菩提心), 삼마지보리심(三摩地菩提心)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것이 보리심계입니다. 행원보리심이란 행과 원의 보리심으로서 밀교의 이상인 즉신성불을 향하여 그것을 기어이 성취하겠다는 굳은 신심과 그에 따른 수행을 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승의보리심이란 열등한 가르침을 버리고 밀교의 수승한 법을 배우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마지보리심이란 밀교의 실천에 의하여 육신 그대로 불과 내가 하나로 되어 심신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三摩地sam dhi)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밀교에서는 이러한 보리심을 지니는 것을 계로 생각하여 보리심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보리심이 있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맹세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특히

삼매야계(三昧耶戒)라고 하여 밀교입문의 필수과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삼매야(samaya)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다는 뜻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거슬러 올라가면 불과 내가 다를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지극히 개념적인 조항을 계로 간주하여 나타내는 것이 초기불교의 계의 형식과 다른 밀교의 계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불교의 세세한 계율 조항이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일일이 지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계를 제정한 정신만을 중시하고 소소한 조항은 무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반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소소한 계율 조항은 버려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정신이 중요한 것이니 소소한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모든 행동강령을 사중금계(四重禁戒)하나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일경》과 《금강정경》에 설해진 것으로서 밀교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가지를 들어 사중금계라고 하는데 첫째, 대승의 법을 비방하지 말 것. 둘째, 보리심을 버리지 말 것. 셋째, 교법을 아끼지 말 것. 넷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괄적인 대승의 정신으로서 불제자, 특히 밀교도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수계의 정신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세한 규정을 따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오계조차도 변변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입니다. 출가승조차도 기본 오계도 지키지 못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빚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계율 조항이 얼마나 많은가를 따지기 보다는 계를 지킴으로서 성불로 나아가는 사다리로 삼는다는 정신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밀교의 계에 대한 규정은 느슨한 것 같지만 더욱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불교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 온 스님들은 수행자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법을 마련해 놓았다. 달콤한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달콤한 약을 주고, 쓴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쓴 약을 주는 것이 방법의 핵심이다.

즉, 융통성이 필요한 때에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고, 단호함이 필요할 때에는 단호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늘 자비심을 바탕으로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자비심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건전한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지혜로운 방법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정 공동체를 일구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부드러워야 할 때와 단호해야 할 때를 바로 아는 것이다.

상황이 악화될 때에는 더 이상 나쁜 것이 퍼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잘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단호하게 베어 내는 것만이 사랑

을 표현하는 유일한 길인 경우도 때로는 있다.

아시아의 절 입구에는 대체로 두 기의 조각상이 있다. 하나는 부드러운 모습이며, 다른 하나는 사나운 모습이다. 부드러운 모습의 조각상은 인자한 얼굴에 연꽃을 들고 있다. 사나운 모습의 조각상은 험상궂은 얼굴에 무기를 들고 있다.

공동체를 일구는 데에는 이 두 사람이 다 필요하다. 붓다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면 부드러운 사람과 사나운 사람이 모두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이 현현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부드러운 사람은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잘했다고 칭찬한다.

“괜찮아. 잘했어. 두려워하지 마.” 사나운 사람은 경고한다. “마보 같은 짓 좀 그만 해라. 계속 그러면 혼내 준다.” 하지만 실은 사나운 사람도 온화한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얼굴은 매우 무서울지 모르지만 마음속은 자비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드러운 얼굴도, 사나운 얼굴도 지혜를 깨우치기 위한 방편임을 깨달을 때 관세음보살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다.

관세음보살이 언제나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든 다 받아준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

생이나 아우를 둔 형이나 언니라면 관세음보살의 그런 면을 배워야만 한다. 사랑을 하되 그 사랑을 잘못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자르고 쳐내야 할 가지에는 과감하게 칼을 대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고통스럽겠지만 영원한 고통은 아니다. 마치 수술할 때에는 고통스럽지만 중국에는 환자의 건강이 좋아지는 이치와도 같다. 1



자연 환경과
생명 보호

법경 정사

불교종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철학박사

법천사주교

청정한 계율 _ 49

땅을 파헤치지 말라

승가는 공동체 생활을 하므로 그에 따른 규범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청결과 위생에 관한 규범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관련된 규범도 더러 있다. 이는 못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제정된 규범들이다.

여기에는 ‘땅을 파헤치지 말라’, ‘살아 있는 나무를 꺾지 말라’는 내용도 있다. 모두 생명파괴를 금하는 규범들이다. 불살생의 계율로서 이를 어기면 바일제에 해당된다.

땅을 파지 말라는 계는 굴지계(掘地戒)이다. 굴지(掘地)란 땅을 파서는 안된다는 계이다. 그것은 대지(大地)에는 생명체들이 있어서 땅을 파거나 말뚝을 박거나 하면 대지의 생명체를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계를 『근본유부율』에서는 괴생지학처(掘生地學處)라 하고, 『시분율』에서는 굴지계(掘地戒)라 한다. 이 계율이 제정된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광야성에 계실 때에 6군비구가 부처님을 위하여 강당을 개축하면서 스스로 땅을 파는 것을 본 재가신도들이 “사문 석자가 무자비하게 땅을 파헤쳐 못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 아래와 같이 계를 제정하셨다.

“어떤 비구가 손수 땅을 파면 바일제이니라.”



이렇게 되자 비구들은 손수 땅을 팔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재가신도들을 시켜 땅을 파는데 이들이 잘 알지 못하여 여기저기를 파헤치니 비구들이 “여기를 파서 저기에 놓으라. 저기를 파서 여기에 놓으라” 하며 일을 시켰다.

그러나 이것이 또 원인이 되어 부처님께서 다시 다음과 같이 제를 제정하셨다. “어떤 비구가 손수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 땅을 파면 바일 제가 되느니라.”

이를 『팔리어』에서는 「광야국 비구들이 정사^{정사}를 수리하면서 스스로 땅을 파고 다른 이에게 땅을 파게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문석자는 땅을 파고, 남에게 땅을 파게 하는가? 사문석자는 일근^{일근}의 생명을 해친다’고 비난하였다」고 한다.

일근^{일근}의 생명이란 작은 못 생명체를 말한다. 보잘 것 없는 생명이라도 죽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십송을』에서는 「비구가 스스로 땅을 파고, 담장을 만들고 도랑 연못 우물을 파고, 진흙을 파내었다. 한 외도^{외도}의 제자인 거사가 있었는데 그는 땅속에 생명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람은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책해서 말하기를, ‘사문석자는 스스로 선호하여 공덕이 있다고 하지만 일근^{일근} 중생의 생명을 빼앗는구나’라고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외도^{외도}는 자이나교라고 추측하고 있다. 왜냐하면 불교 보다

불상생을 더욱 엄격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자이나교는 특히 철저한 금욕^{금욕}과 함께 생명의 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작은 생명체 뿐만 아니라 지수화풍의 사대^{사대}원소에도 생명이 있다고 할 정도로 생명의 폭을 넓게 보고 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사 땅에 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가자는 웅당히 땅을 파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일은 마땅히 적게 해야 하며, 세인들에게 비난받거나 선복^{선복}을 잃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부터는 스스로 땅을 파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하셨다.

혹시라도 땅속에 벌레가 있을지 모르므로 땅을 파서 공연히 못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렇듯 출가수행자는 작은 생명일지라도 못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불살생을 철저히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계가 근본오계에 들어 있는 이유다.

살아 있는 나무를 꺾지 말라

못 생명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작은 생명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식물에도 해당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살아 있는 나무를 꺾지 말라고 하셨다. 살아 있는 나무를 꺾지 말라는 계는 괴생중계^{괴생중계}이다. 이는 식물의 생명체도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



연환경을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괴생종계(鬼生種戒)의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광야성에 계시실 때 비구들이 방사(房舍)를 건축하기 위하여 큰 나무들을 벌목함으로써 많은 재가신도들과 바라문들이 비난할 뿐 아니라 그 나무를 의지하고 있던 귀신이 집을 잃고 애기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찾아와 거처를 잃었다고 호소하였다.

부처님은 이로 인하여 그 비구들을 크게 꾸짖고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였다.

“만약 비구 비구니가 귀신촌의 모든 초목을 벌목하면 바일제이다.”

이 계를 달리 벌초목계(伐草木戒)고도 한다. 초목을 베어서는 안된다는 계이므로 초목을 그대로 붙여서 벌초목계라 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던 괴생종계는 그 의미가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살아 있는 나무 종자를 잘라서는 안된다는 뜻이라는 부연설명이 따르지 않고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계목(戒目)이다.

생종(生種)은 살아 있는 모든 종류의 나무를 말한다. 따라서 어떠한 나무이든지 자르거나 꺾어서는 안된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나무를 꺾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인도의 오래된 풍습에 기인하고 있다. 우기(雨季)가 아닌 때에는 대지가 건조해지면 수목의

잎이나 풀 등 다른 식물은 말라 죽는 경우가 많으나 나무만은 마르지 않고 생장해 나간다.

그러한 수목에는 특수한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인도 민중은 특히 큰 나무를 신이라 여기고 예배한다. 그러한 나무를 함부로 꺾거나 잘라 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무를 꺾지 말라나는 계는 단지 식물에 대한 불살생의 의미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숭배와 보호, 생명보호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그래도
희망 ing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경광등을 번쩍이며 줄지어 고속도로를 달리는 소방차의 행렬을 본 적이 있으신지. 이름하여 '속초로 향하는 영웅들',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전국 각처에서 어두운 밤길을 헤치며 강원도로 향하는 이들 소방차의 장엄한 행렬을.

소방관들은 밤새워 먼 길을 달려와 숨 돌릴 틈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치솟는 불기둥과 강풍을 타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시뻘건 불덩어리, 자욱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 숨통을 막는 매캐한 냄새-불지옥 속에 살신성인의 영웅들이 있었다.

뿐만인가. 헬기조차 뜰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분진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진화작업에 나섰던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들이, 방탄모와 마스크를 쓰고 숨어있는 작은 불씨까지 살살이 뒤지며 잔불 정리에 나섰던 16,500여 명의 국군 장병들이, 지상의 진화작업에 발맞춰 하늘을 날며 주불 잡기 합동작전을 펼친 헬기 조종사와 밤샘 대기도 마다하지 않고 헬기 정비에 나섰던 정비사도 잊지 말아야 할 영웅들이었다. 발화지점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던 화약 전문 업체의 화약 창고에서 뇌관 2,990발, 폭약 4,984kg, 도폭선 299m를 안전지대로 옮기기 위해 촌각을 다투며 땀 흘린 속초경찰서 경찰관들도 영웅이다. 화약 창고는 1시간여에 걸친 이송 작전이 완료된 후 전소됐다.

생업을 접어두고 위험을 무릅쓴 채 배달 오토바이로 주택가 골목골목을 누비며 주민들을 실어 날랐던 인근 식당의 배달원들, 의료원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어르신들의 대피를 도와준 경찰관과 시민들, 호스 하나를 들고 밤새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물을 뿌려 마을을 지켜낸 이웃, 대피 방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외진 곳에 있는 이웃집까지 뛰어가 화마를 피하게 해 준 통장 부부, 줄지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선뜻 방을 내어 준 숙박업소 주인, 먹을 것 입을 것 덮을 것을 들고 달려와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이 모두 다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적서 주는 아름다운 영웅들이다.

숨은 영웅은 또 있다. 화마로 삶을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을 보내온 이들,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산불 진화와 주민 대피, 이재민 지원, 급식·급수, 전기 복구, 교통정리, 피해 가구 지원, 의료지원 등에 구슬땀을 흘린 13,893명(5월 1일 기준)의 자원봉사자들, 가장 먼 땅끝마을에서 달려와 진화에 애써준 해남소방서에 감사의 편지와 함께 닭갈비를 보냈다는 춘천의 한 시민, 이재민들을 위해 써 달라며 막내아들 돌잔치에 지인들로부터 받은 금반지와 팔찌 등을 속초시에 전달한 인천의 한 시민, 용돈과 세뱃돈이 담긴 돼지저금통을 맡겨온 어린이, 이들이 모두 모두 다 위대한 영웅들이다.

이번 강원 산불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세종,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강원 등 전국에서 소방차

872대, 소방관 3,251명, 진화 헬기 51대로 단일 화재 사상 최대 규모의 장비와 인력이 동원됐다고 한다. 국방부도 군 항공기 32대, 소방차 46대, 장병 16,5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돕고,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해 6,800명분의 전투식량을 지원했다.

사흘 동안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는 폐허였다. 고성·속초 1,227ha, 강릉·동해 1,260ha, 인제 345ha로 모두 2,832ha의 산림이 불타고 566세대 1,289명의 이재민과 고성·속초에서 2명의 사망자, 강릉에서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총 피해액 1,291억 원 중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553동), 농업·축산·산림시설(195개소) 등 4,461건, 303억 7,800만 원에 달하고, 공공시설도 산림(11개소), 문화 관광(31개소), 군사(94개소), 상·하수도(48개소) 등 219개소, 988억 3,8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았다.

그 때문에 영웅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겠으나,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운 이들이 없었다면 피해는 몇 배로 더 커졌을지도 모른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손잡아 준 이들이 없었다면 잿더미는 영영 절망의 땅으로 남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 영웅이 있어 우리는 다시 폐허 위에 씨앗을 뿌리고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꿈꾼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 복구비 1,853억 원을 확정하고 이

와는 별도로 산불 화재 대응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97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세웠다고 한다. 주택이 전파된 이재민에게는 정부 지원금 1,300만 원, 지방자치단체(강원도) 지원금 2,000만 원, 성금 모금액 3,000만 원 등 총 6,300만 원을 지원하고, 반파된 이재민에게는 정부 지원금 650만 원, 지자체 지원금 1,000만 원, 성금 모금액 1,500만 원 등 총 3,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란다. 이재민과 피해 주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과 생업 재개에 초점을 둔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은 피해 주민들에게는 턱없이 미흡하고 또 미흡하기만 한 일이지만 중구난방, 주먹구구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정부의 당초 지원금이 이렇듯 커질 수 있었던 데는 국민 성금이 큰 몫을 했다. 4월 말 기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성금이 470억 원을 넘겼다. 십시일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많은 이들의 정성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이다. 게다가 지금도 많은 자원봉사자가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하니 『금강경』의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보는 듯하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는 집착 없이 베푸는 보시를 말한다. 가난한 이에게 분수대로 나누어 주고, 마음이 빈곤한 자에게 진리의 말로 용기와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며, 모든 중생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다.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다는 자만심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푸는 참된 무주상보시의 경지, 그 마음으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내 것을 나누며,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 땅의 영웅들에게 고개 숙여 이 시를 바친다. 🙏

애인 - 육바라밀(六波羅蜜)

님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님에게 보이자고 애써 깨끗이 단장한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계를 배웠노라
님이 주시는 것이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자나 깨나 쉬일 새 없이 님을 그리워하고
님 곁으로만 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노라
천하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님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웠노라
내가 님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도
슬픔도 님과 나와의 존재도 잊을 때에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이제 알았노라 님은 이 몸께 바라밀을 가르치려고
짐짓 애인의 몸을 나투신 부처시라고...

- 춘원 이광수



집에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가 집에 안 오기에 전화를 했다. 전화를 몇 번을 해도 안 받아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걱정을 많이 했다. 얼마 전에는 학교에서 다리를 다쳐서 걱정을 시키더니 이번에는 마음이 이상해서 차시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얼른 받으니 아이가 격앙된 목소리로 약간의 사고가 있어서 무슨 경위서를 쓰느라고 좀 늦는다고 했다.

아이가 집에 오기도 전에 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신이 아득했다. 당장 내일부터 가해자 애들을 격리시킨다는 말을 듣고 우리 애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서 애가 집에 오기 전에 억러 군데 전화를 돌리고 아는 변호사한테도 전화를 하고 후배들한테도 전화를 하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아이가 집에 오고 나서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상황이 아주 심각했다. 당장에 가해자들에게 달려가서 혼내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났다. 동네에서 보던 아이들이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애들이었다. 한 다리만 건너면 금방 알게 되는 좁은 지역 사회에 살고 있

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화가 났다. 그래도 아이에게 신고를 한 것이 잘 한 일이라고 격려해 주었다.

아이가 힘들어 하지 않도록 다독여주고 바로 다음날 심리 상담소를 찾아서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 화를 내고 있는지 참고 있는지 모를 아이를 보고 속이 다 탔다. 그걸 보고 있으려니 마음이 무너지고 그럴 때마다 차시를 하고 엄마는 염송하시고 나는 진언만 마음으로 했다. 아이가 일주일 동안 학교를 나가지 않고 심리 치료를 받으려 다녔기에 모든 일정을 아이 위주로 맞췄다. 내가 단단해져야 아이도 단단해진다고 싶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도 했다.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은 동안에 학교에 간 다른 피해자는 2차 피해까지 받고 있었다. 그 아이 부모님은 너무나 착해서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러 오지도 않았는데 사춘기 애들이 한 일이니 좋게 해결하던 분들이었다. 나는 그 때 화가 나서 좀 울었다. 용서를 구하러 오지도 않았는데 뭘 용서냐고 화르륵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 자식이 2차 피해를 받고 나니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화를 냈고 그걸 보는 나도 마음이 안 좋았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공포가 극에 달했다. 밤에 잠도 못자고 일어나서 염주 잡고 울었다.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무서웠다. 이일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염송을 했다. 누구

를 만나러 갈 때도 차시를 하고 나중에는 내가 회사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참회하고, 내가 누구한테 잘 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죄송하다고 참회를 하고 혹시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도 용서를 빌었다. 별별 생각을 다 할 정도로 염주 붙잡고 울고 차시하고 울고 학교 가서 학교 폭력심사 위원 앞에서도 평평 울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는 나이가 되었는데 울고 울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딱 죽을 맛이였다. 출근해서 선배들한테도 어찌해야할지 조언을 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소연을 했다. 소통이 없던 사람들도 나서서 도와주고 친하지도 않는데도 걱정해주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도 차츰 안정을 찾았다.

가해자 부모들이 뒤늦게 사과하러 왔고, 그런 사과를 받음으로 우리 애도 마음의 짐에서 조금 벗어 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이는 여전히 친구를 잃었다는 충격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으려 다니기는 하지만 이것을 잘 견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주변 사람들이 다 기도해주시고 염송해 주시고 힘내라고 안아주실 때마다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고집 부리고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은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편협한 인간관계도 참회를 하고 있다.

내가 아이를 공부를 잘하고 착하고 예의바르게 키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라와 국가와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는 전국의 사원에 계시는 보살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다시 한다. 그 덕으로 이만하기만 했다는 생각을 했다. 고맙고 감사하고 든든한 마음이 들어서 좀 더 울었다. 내 아이만 잘 살아 갈 수 없다. 함께하는 세상이 좋아야 내 아이도 좋게 살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내가 염증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채찍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2차 피해를 당한 그 애에게 나도 가해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텅텅 우는 그 애 엄마를 한참이나 안고 울었다. 우리 애와 같이 심리치료를 보내고 학교를 쉬었으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자책하는 그 애 부모를 보고 어찌 같이 안 울 수 있겠는가 말이다. 아이가 그 소식을 듣고 당장에 학교로 달려가 가해자 녀석들을 패주겠다고 한 것을 말리며 나는 불공을 했다. 그래도 지금은 학교에 씩씩하게 가고 있다. 가해자들에게 “내 용서가 부끄럽지 않게 해 주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 짧은 사이에 당당한 아이로 자랐다.

비록 아이의 중간고사 성적이 끝에서 두 번째가 되었지만 다들 혼내지 말라고 걱정을 해 주신다. 모든 과목을 A를 받겠다던 아이의 꿈은 날아갔다. 시험 기간에 아이도 마음을 잡는 게 힘들었는지 며칠

동안 레고만 만들더니 역시는 1번으로 다 찍었는데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했다. 선생님이 얼마나 1번을 좋아하시는지 이번에 알았다고 웃었다. 애도 우리도 그깟 성적이 대수냐고 마음을 내려놓았다.

어떤 보살님이 그랬다. 자신은 고난이 와도 좋다고, 그래야 더 많이 불공하고 더 많이 달라질 것이라던 그 말을 이제야 좀 알 것도 같다. 고난이 오는 것이 싫지만 이렇게 고난을 겪고 좀 더 자란 것 같으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부터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진심으로 하심하고 참회하고 있다. 저절로 그리 된다. 다들 마음에 틈이 생기면 “불공해라. 그러면 된다.”고 하시기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또 그런 말 하신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참회하고 있다. 그 말을 믿기로 했다. 진심으로 !



난 나비가 아니였어요

김대곤
시인

바람 속삭여 줄 때
난 나비인줄 알고
파닥이고 살았어요.

언제든
날 수 있을 때 날 수 있을거라
생각 했어요.

햇살 사라지고
비 바람 지난 다음에야

난 나비가 아니라
흔하디 흔한 꽃잎이란걸
그때 알았어요

비 바람에 꽃잎 떨구고
까만 빈속대만 흔들고 있는

지독한 바보
가짜 나비였어요

십선회향

묘원화
벽룡사 전수

살생중죄 지심참회 자비공덕 금일성취
 투도중죄 지심참회 이행공덕 금일성취
 사음중죄 지심참회 정렬공덕 금일성취
 망어중죄 지심참회 정어공덕 금일성취
 기어중죄 지심참회 실어공덕 금일성취
 양설중죄 지심참회 화합공덕 금일성취
 악구중죄 지심참회 애어공덕 금일성취
 탐심중죄 지심참회 보시공덕 금일성취
 진심중죄 지심참회 환희공덕 금일성취
 치심중죄 지심참회 지혜공덕 금일성취

- 십선회향 -

매일 동참 불공 때마다 읽는 십선회향은 세속인들이 불교도로서 지켜야 할 10가지 계율이다. 십선회향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십악을 수행을 통해 십선공덕으로 바꾸어 나와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지는 발원이며 새김이다. 그래서 개인 정진 시에 독송하기도 한다.

십악을 살펴보면 몸으로 짓는 살생, 투도, 사음 죄가 있고, 마음으로 짓는 죄로는 탐심, 진심, 치심이 있다. 그 가운데 말로 짓는 죄가 망어, 기어, 양설, 악구로 가장 많다. 이렇다보니 음마니반메흠 염송을 많이 하면 바르지 못한 말을 하지 않는 과보만으로도 이익이 크다.

그러나 묵언을 하는 것만으로 정어 수행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세속에서 살면서 평생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말을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고 좋은 말인지 선지식들에게 배워 보자.

대화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누구를 주어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나 전달법 I-Message'와 '너 전달법 You-Message'이라고 한다.

A엄마 : “너는 공부는 안하고 핸드폰만 종일 보니?”

“지금 당장 들어가서 공부해!”

B엄마 : “엄마는 ○○가 핸드폰을 두 시간 동안

보고 있는 걸 보니까 걱정돼.”

“이젠 그만 보고 시험공부도 하면 좋겠어.”

두 엄마는 같은 내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읽어 본 느낌은 어떠한가?
A엄마는 '너는 ~' 하며 자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너 전달법'으로 말하
고 있고, B엄마는 '엄마는 ~' 하며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며 대화하는
'나 전달법'으로 말하고 있다.

나는 어떤 엄마인가? 걱정하지 마라. A엄마는 우리의 수행 이전의
모습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수행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해서는 변화란 없다. 좀 어
색하고 낯간지럽더라도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해 배우고 사용해 보자.

정어 수행의 공덕은 원활한 의사소통이며, 가족들의 공감과 지지는
수행자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고조시킨다.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것을
맞본 사람은 하지 말래도 수행한다.

그것이 중생들의 행복이고, 불교인들의 목표이며, 수행의 이득이고,
원동력이다. 🙏

현상의 참 성품을 바르게 직시하도록 노력하라.
무의미하며 고통만 낳는 망상에 끌려 다니며
괴로워하지 마라.

과연 괜찮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는가?
마음의 평화를 희생할 정도로 대단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괜찮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놓아 버릴 수 있는 것들 뿐이다.

받아들이고 그 성품을 꿰뚫어 놓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라도 괜찮은 것들 뿐이다.
이런 일은 나에겐 일어나면 안돼,
이런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지 마라.

모두 괜찮다.
그리고 모두 놓아 버려도 괜찮은 것들 뿐이다.

- 아산 교살라 사야도(미얀마 쉼민수행센터 큰 사야도) -



부디 다음 밤 꿈에는...

홍명원(洪命元)

1573~1623
조선 중기 문신



꿈에 선친을 뵈다 夢拜先君

죄 많은 이 목숨 살아 있으니
풍수의 슬픔 견디기 어려워라
무단히 선친을 모셨더니
병환이 있어 치료가 시급해 보였네
목소리는 생전이나 똑같은만
체구는 옛날보다 줄어드셨구나
깨어보니 쓸쓸한 객관의 새벽
비몽사몽간에 눈물만 흘러노라

罪戾餘生在
難堪風樹悲
無端陪杖屨
有疾急醫治
警戒猶平昔
儀形減舊時
覺來孤館曉
恍惚淚空垂

죄려여생재
난감풍수비
무단배장구
유질급의치
경해유평석
의형감구시
교래고관효
황홀루공수

-『해봉집(海峯集)』 권1「오언율시(五言律詩)」

홍명원이 선친 홍영필(洪永弼)을 꿈에서 뵈고 쓴 시로, 지어진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연보를 보면 홍명원은 1597년(선조30)에 25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한 이후 검열, 설서, 교리 등의 청직(靑職)을 역임하다가, 1601년 11월 원접사 종사관이 되었을 때 부친을 여의게 된다.

꿈이라는 시공간은 때론 만나고 싶어도 현실에선 만날 수 없는 사람과의 만남을 실현시켜주기도 한다.

가만히 있고 싶지만 바람이 멈추지 않아 괴로운 나뭇가지처럼, 부친이 살아계실 때 마음껏 다하지 못한 봉양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 괴로워하던 시인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찾아온다.

꿈속에서 뜻밖에 만난 선친은 병색이 완연해 보인다. 급히 치료해야 할 것 같아 염려스러우면서도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어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다. 그러나 가슴이 철렁했던 것은 생전에 비해 유난히 앙상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서이다. 역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으리라.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대체로 후회를 하곤 한다. 그게 무언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게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부모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유로 후회하게 되는 것 같다. 나에게 한없는 편안함을 주는 존재이지만 지금껏 내 곁에 있어왔기에 소중함을 자각하지 못하다가, 그들이 부재한 후에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바람이 그치지 않을 때에야 나뭇가지는 가만히 있기를 바라고, 부모가 세상에 없어야 자식은 비로소 모시기를 바르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인과 관계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어찌면 꿈에 나타난 선친의 병세가 심각하고 체구가 줄어든 것은 시인의 마음속 후회와 그로 인한 괴로움이 반영된 게 아닐까. 이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쓸쓸히 눈물짓는 시인의 모습이 나인 듯 서러워진다.

그러니 돌아가신 부모들이여, 당신 자식들의 다음 밤 꿈에는 부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 주소서. 이러한 염원을 담아 마음속에 향불 한 줄기를 피워 올리노라.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강만문 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문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특별한 여행을 꿈꾸다

김정숙
자석사교도

생애 처음으로 갖는 자매여행을 제주도에서 맞이하니 감개무량하다. 오늘을 기다리며 8개월간 설레는 마음으로 통장에 차곡 입금되는 순간들, 기다림을 통해서 여행의 즐거움을 다시금 맛보게 해준 행사임에 기대는 더욱 컸었다. 여러 지인들의 가족여행을 늘 부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기에 이번 여행은 내겐 또 다른 경험이자 즐겁고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제주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다. 수많은 인파로 북적대는 제주공항에서 나도 그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뿌듯한 마음이 생겨난다. 공항을 뒤로 하고, 숙박지인 제주시에 있는 대명리조트로 향했다. 어느 지역에서든 우람한 자태로 위용을 떨치는 대명리조트, 제주도의 '대명'은 오랜 역사와 함께 길목을 지키는 야자수들과 어우러져 더욱 고풍스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이제야 제주도에 온 느낌이 실감난다.

우리 일행은 여장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녁 산책 겸 인근에 있는 제주 바닷가를 거닐었다. 제주바다는 부산바다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그윽하고 운치있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저녁노을에 물든 해변가 카페의 불빛들이 제주바다를 더욱 황홀하게 수놓고 있었다. 제주도의 특산물인 흑돼지도 맛보지 않을 수 있으랴. 연탄불에 구워지는 목살과

오겹살, 구수한 맛과 함께 한잔의 막걸리가 새벽잠으로 달려온 여행의 피로감을 씻어내어 준다. 다음날의 여정을 기대하며 여행 첫날의 밤은 자매들의 이야기들로 밤을 지새운다.

여정의 첫 코스로 '천제연폭포'

옥황상제를 모시는 천상의 선녀들이 별빛 영롱한 밤에 구름을 타고 몰래 내려와 맑은 물에 미역감고 노닐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에 의해 붙여진 이름으로 '하느님의 연못'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천제연폭포는 푸르른 물의 빛깔과 주상절리대의 육각모양의 절벽 형상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어쩔 저리도 아름다운 색조를 연출할 수 있는지 자연의 신비함에 그저 놀랍기만 하다. 아쉽게도 폭포수는 흘러내리지 않았지만, 그곳 정경만으로도 마음 가득 담아내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시원스레 부서지는 파도와 신이 다듬은 듯 정교하게 겹겹이 쌓은 육각형 모양의 돌기둥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주상절리대'는 자연의 위대함과 절묘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천혜의 절경으로, 이곳 또한 제주도의 각광받는 명소로서, 감히 인간의 재능으로도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참으로 아름답고 절묘한 자연의 보고이다.

'산방산'은 거대한 종모양의 용암으로 점성이 강한 큰 용암이 흘러나와 멀리 가지 못하고 굳으면서 반구형을 이루었다고 한다. 역시 화산 분출로 생겨난 뛰어난 명작이다. 외곽으로 고산지대에 이르러면 산방산이 바로 눈앞에 와 닿는다. 마치 동산처럼 느껴지는 작은 산이지만,

산 아래 '보문사'와 어우러져 그 자태 또한 아름답기 그지없다. 보문사의 약사여래 부처님의 모습이 지금도 너리에 남아있다. 각 전각에 들러 삼배 절 올리고 내려오니 그 어느 때 보다 불자로서 자긍심이 생겨나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오늘의 여정은 성공적이다. 가는 곳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니 여행의 풍미를 더욱 깊게 느끼게 하였다.

성산일출봉

2박 3일의 마지막 날 아침, 8시 반 경에 '성산일출봉'으로 서둘러 출발하였다. 성산일출봉은 푸르른 바다 사이에 우뚝 솟은 성채와 같은 모양으로 봉우리 정상에 있는 사발 모양의 분화구, 그리고 그 위에서 맞이하는 일출의 장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흥과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제주도의 손꼽히는 명소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사진이나 방송을 통해 많이 알려진 곳이기에 더욱 가보고 싶었던 곳이기도 하다. 드디어 광활한 평원과 분화구의 웅장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와우!!" 저절로 감탄부터 터져 나왔다. 일출봉과 어우러진 경치는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기대 이상으로 아름다운 풍경에 역시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는 이유를 알 것 같다. 화산 분화구의 크기는 축구경기장 30배 가량의 규모라 하니 엄청난 화산폭발이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하긴 제주섬 전체가 자연이 남긴 위대한 자원이기에 자연의 신비함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일출봉의 하이라이트로 11인승 보트를 타

고 푸른 바다를 가르며 일출봉 뒷면까지 탐방할 수 있었기에 이번 여행은 더욱 즐겁고 뜻 깊은 여행이 되었다.

제주민속촌

마지막 코스로 '제주민속촌'을 방문하였다. 제주도의 옛 풍습을 그대로 재현한 곳으로,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모습을 그려낼 수 있었고, 옛날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한다. 2박 3일의 대장정은 끝이 났다.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여행이기에 내 인생에 소중한 추억으로 고이 접어 가슴 한 켠에 묻어 두리다.

자매들의 고향으로 어찌면 처음이자 마지막 가족여행이 될지 모르는다는 생각에 진한 아쉬움도 생겨나지만, 자매들과 함께 한 특별한 여행이었기에 오래토록 기억될 것이다. 불편한 몸으로도 함께 동참해준 언니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프다. 격려해주신 오빠에게도!

"모두들 고맙습니다!!" 🙏



선각자적인 안목을 가진 우당 이회영 선생

자성
법성사전수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몸 바치신 수많은 독립운동가 중에서 항일무장 투쟁의 중심이 된 신흥무관학교를 창설하신 독립운동가의 아버지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아 보고자 합니다.

병조판서만 7번을 지낸 이항복 선생의 10대 손인 이회영 선생님은 자·덕·체를 모두 갖추신 선각자 이십니다.

1905년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에 의해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가 국가의 주권이 상실되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선생님께서는 고종을 설득시켜 주권을 되돌려 받기 위해 1907년 네델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헤이그특사 파견도 실패로 돌아가고, 화가 난 일본은 고종에서 순종으로 강제양위를 시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체결로 결국 조선의 국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나라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자 책임을 지고자 선생님은 군대양성을 계획하여 만주 서간도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셨습니다.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온 선생님의 여섯 형제들은 어느 누구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독립운동에 몸 바치기로 결심하여 지금의 가치로 15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600억에 급히 처분하고 무관학교를 세우기 위해 50여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만주로 떠나게 됩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 선생님은 뱃사공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며 “앞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이 강을 건널테니 잘 부탁한다.”는 말씀도 남기셨다 합니다.

1911년부터 1920년까지 무려 3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신흥무관학교는 김좌진의 청산리대첩과 홍범도의 봉오동전투에 참여한 군인들

을 배출한 유명한 무관학교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땐 젊은이들이 유일한 희망이기에 교육에 많은 힘을 보태신 산 교육자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3000명의 학생들을 무료로 숙식과 교육을 지탱해 왔던 600억의 재산이 다 소진되자 이 때부터 선생님의 가족들은 엄청난 가난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선생님 아들의 기록을 보면 일주일에 두끼 먹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1933년 선생님 나이 66세 되던 해 거사를 준비하기 위해 만주로 떠나신 후 행방불명이 되셨습니다.

며칠 뒤... '만주에 도착하는 배에서 군경의 검문을 받고 수감되자 창살에 목을 매단 이상한 노인'이라는 작은 기사 하나가 일본신문에 실렸습니다. 이상한 노인이 바로 이회영 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자결했다는건 일본의 조작이었고 사실은 거사의 정보가 세어나가 체포되어 60대 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끔찍한 고문을 당하셨고, 고문의 고통속에서도 그 어떤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고 안중근 의사가 집행당한 만주의 위순감옥에서 순국하시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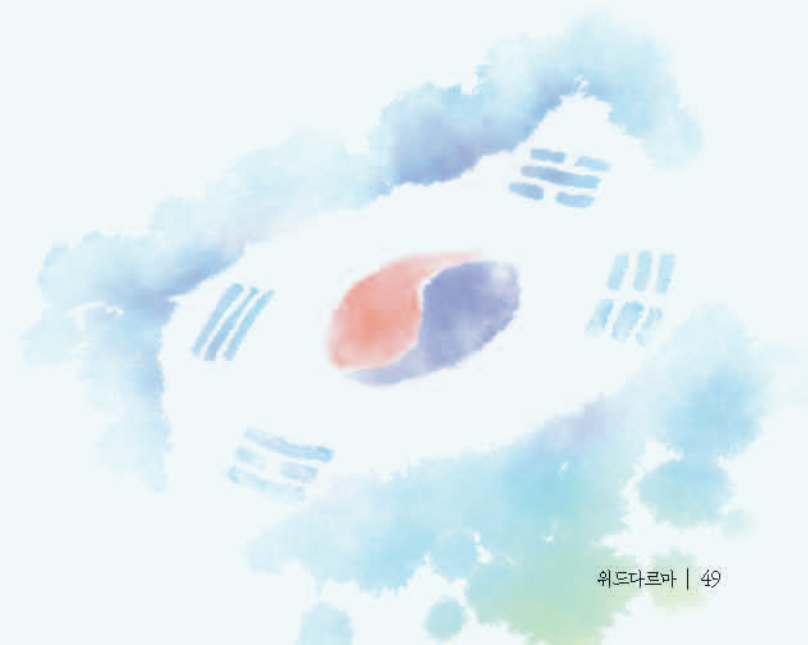
모진 고문 끝에 순국하던 그 순간까지도 선생님이 바랐던 것은 오직 고국의 독립뿐이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이회영 선생님... 또한 선생님의 여섯 형제들도 가슴 아픈 마지막 생을 맞이하게 되는데...첫째 이견영은 상해에서 독립운동중 병사하셨고, 둘

째 이석영은 굶주림으로 돌아가셨고, 셋째 이철영은 신흥무관학교 교장 때 병들어 세상을 떠나셨고, 넷째 이회영은 고문으로 순국하셨고, 여섯째 이호영은 온 가족이 일본군에게 몰살 당하였습니다.

육형제 중 유일하게 다섯째 이시영만이 생존하여 광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분이 우리나라 초대부통령 이십니다.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이 없을 것이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또한 행복이 아니겠는가.”

이회영 선생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지...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봅시다. 🙏





얼마 전 한 신문에서 20대, 30대 미혼남녀 열 명 중 일곱 명은 미신을 믿거나 신경을 쓰게 된다고 하는 설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다. 실제 그런 것 같다. 신도님들을 만나봤다 보면 미신이나 사주팔자 같은 것을 의외로 크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믿는 미신들은 ‘밤에 휘파람을 불면 귀신이 온다’거나, ‘애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다’거나, ‘숫자 4는 불운이나 죽음을 의미한다’거나, ‘빨간색으로 사람의 이름을 쓰면 안 좋다’거나, 심지어 연인이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헤어진다는 류의 미신도 있다.

그런가 하면 ‘임신한 사람은 초상집에 가면 안 된다’거나,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야 한다’거나, ‘밥상에 앉을 때 모서리에 앉으면 안 된다’거나, ‘제사 지낼 때는 홀수로 해야 한다’거나,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거나, ‘돼지 꿈을 꾸면 돈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등등으로 온갖 다양한 종류의 미신이나 터부시 하는 것들이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널리 알려진 미신 말고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다양한 미신이며, 징크스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얽매어 있



다. 미신이나 징크스 같은 것은 정말 있는 것일까?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없다. 불법은 무유정법이다. 정해진 바가 없는 것이야말로 불법이다. 미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러면 이렇다더라'하는 하나의 믿음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믿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그것에 실체를 부여하여 그런 현실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고정된 실체로써의 정해진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미신 아닌가? 미신은 말 그대로 진실된 것이 아닌, 미혹한 믿음, 헛되고 바르지 못한 미신일 뿐이다.

이렇듯 말 자체에서 그렇다고 이미 결정지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혼란 미신들에 스스로 얽매어 있다. 물론 아마도 그럴지 아닐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니 기왕이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미신을 스스로 믿어 버리거나, 그 미신대로 하고 나서 마음 속으로 근심걱정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 징크스라는 것도 비슷하다. 징크스는 없다. 내가 그렇게 믿기로 작정했을 뿐, 그런 것은 없다.

미신이나, 사회에서 혹은 사람들이 터부시 하는 것, 혹은 내 스스로 징크스라고 여기는 것에서 자유롭게 놓여나라.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 모든 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미신도 나라마다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접시를

깨면 재수가 없다고 여기지만, 러시아에서는 접시를 깨면 행운이 온다고 믿는다. 터부나 미신에 얽매이게 되면, 자신의 창의성과 혁신,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방해하기 쉽다. 터부나 미신에 얽매일수록 삶은 제한된다. 터부나 미신은 하나의 헛된 분별심이며, 망상일 뿐이다. 그것을 믿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물론 그렇다고 미신이나 터부시되는 것들을 무조건 배격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음으로써 그로인해 나의 삶이 제약되거나, 구속되거나, 괴로워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금강경에서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어 집착하지 말 것을 설하는데, 미신 같은 거짓 믿음에 집착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

- BBS 불교방송 라디오 '법상스님의 묵탁소리'



다산의 마지막 공부

지현 전수
자석사



다산의 마지막 공부
조은제 지음

P36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P39
감정과 욕망이 들끓을 때 잠깐 성찰하는 시간.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자신을 자신의 감정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남의 일을 관찰하듯
스스로를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면 감정에
지배되지 않을 것이다.

P123
자존심이란 타인이 나를 무시했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아는 감정이다.

이 책은 다산이 공부의 마지막으로 삼고자 했던 <심경>에 관한 책이다. <심경>은 중국의 송나라 시대 학자인 진덕수의 유교정전을 말한다. 또한 이 책은 사서삼경을 비롯하여 동양 고전 책들의 마음 추스리는 법을 엄선하고 해설을 덧붙인 것으로, 진덕수가 선별한 마음과 관련된 명구 중에서 다시 핵심을 뽑아 현시대의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풀어낸 것이다.

다산 정약용에 대해 많이 아는 것도 아니면서 그저 그에 대한 정말 몇 안 되는 알음알이로,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제목과 평소 화두처럼 따라 다니는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이라는 부제가 눈길을 끌어 과제처럼 쌓여있는 읽을거리들을 제쳐두고 먼저 이 책의 첫 장을 열었다.

하지만 막상 읽기를 시작하니 제목이 의아스러울 정도로 다산에 관한 얘기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평생을 학문과 저서에 몸을 바친 다산의 마지막 공부가 '마음'이라는 단어에 귀결되어 그 종착점을 찾으려 했다는 것, 아득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정한 공부의 시작과 끝은 결국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었다.

책속엔 수 천 년 전 유교를 이끌었던 공자를 시작으로 그의 제자들인 맹자 등을 중심으로한 동양사상가들의 마음, 공부에 대한 철학이 지면 구석구석에서 걸어 나와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 우리들에게도 등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내용이 다소 무겁거나 쉽지 않은 점이 적지 않았지만 읽는 동안만이라도 고요하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되어 주었다.

마음.....이란 거, 언제부터인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이면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되어버렸다. 나와 함께 동고동락해야 마땅한 마음이란 녀석은 정작 나와 결코 친할 수 없는 이방인 같은, 무형의 동거인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내 인생의 걸림돌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라고 책을 감싸는 띠에서 말한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라는 아들러의 말이 떠올랐다.

삶의 힘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힘든 그 상황보다는 그로인해 마음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런지...

부처님의 진리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강조되는 말인 줄만 알았던 마음이란 것이 종교와 시대를 불문하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찾는 과정이 결국 삶을 삶답게 한다는 나름의 결론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요즘 들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완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이 책은 끝까지 마음을 다 해 읽게 되었다.

책의 부제처럼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분명 쉽지 않았지만, 마음을 다 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중심이 많이 흐트러진 요즘의 내게 충분한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며 인연 닿는 분들에게 읽어보기를 서슴없이 권하는 책이다. 📖





소쩍, 소쩍... 올해 들어 처음으로 소쩍새 소리를 들었다. 올 봄 벚꽃이 지천인 나날동안 늘 기다리던 소리다. 혹시 이제는 여기에도 소쩍새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개인적으로 벚꽃하면 떠오르는 것은 흐드러진 벚꽃의 이미지 보다 소쩍새 소리다. 밤까지 꽃길을 가득 메운 상춘객들의 소란한 소리 속에도 소쩍새 소리가 있었고, 벚꽃 아래를 거닐던 아내와 첫 데이트에서도 소쩍새 소리를 들었다. 항상 벚꽃이 한창인 날엔 소쩍새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 것 같다.

옛날 국어 시간에 배운 김소월의 '점동 점동 아을래비 점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 마을에 와서 읊니다...'로 시작하는 슬픈 운율 가득한 시에 대한 기억이 남아서 인지 몰라도 모두가 느끼는 소쩍새 소리의 이미지는 '슬픔'인 것 같다.

예부터 중국에서도 '귀촉도(歸愁道)'나 '불여귀(不如歸)'라 해서 멸망한 촉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는 충신의 넋이 담긴 한의 소리로 여겼다고 하니 누구에게나 구슬프게 들리는 것은 마찬가지일 듯하다. 다만 우리의 전설은 중국 것과 달리 힘겨운 시집살이와 배고픔의 한이 담겨있다.

시어머니가 준 작은 솥으로 밥을 짓다 남은 밥이 없어서 결국 굶어 죽은 며느리가 새^새로 승화하였으며 그 새가 밤마다 찾아와 '술쩍다, 술쩍다'라고 피를 토하도록 울었다고 한다. 그리고 보면 이 외에도 국내에 서식하는 많은 생물들의 이름과 전설에는 배고픔과 시집살이에 대한 애환이 담긴 이름들이 많다. 식물에는 고된 시집살이를 잊볼 수 있는 며느리밥풀, 며느리말뼉개, 며느리배꼽 등이 있다.

소쩍새 이외에 새소리에는 '쭉쭉 바퀴쭉, 쭉쭉 바퀴쭉'라고 우는 두견이에 관한 전설도 있다. 소쩍새와 두견이가 우는 시기가 보릿고개의 절정인 4월과 6월 사이이다. 호된 시집살이와 배고픔의 처지에 놓인 며느리나 서민들이 구슬픈 소리를 들으면 자연스레 이 새들을 설움과 고통의 감정이입 대상으로 여겼을 것이다. 여기서 잠깐 사족을 하

나 달자면 어릴적 국어시간에 소쩍새의 동의어로 귀촉도, 불여귀, 접동새, 두견이 등이라 배운 적이 있다. 4개를 다 외우지 못한 수만큼 손바닥을 맞기도 했다. 하지만 두견이와 소쩍새는 엄연히 다른 종류의 새이다. 두견이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겠지만 뻔꾸기의 일종이다. 소쩍새는 쇠부엉이, 올빼미, 긴점박이올빼미 등과 같은 Owl(올빼미나 부엉이의 총칭)의 일종이다. 흔하지 않은 텃새로 국내 전역에 폭넓게 분포한다. 크기는 대략 20cm 내외이며 날개길이는 50cm 정도로 다른 올빼미류Owl에 비해 작은 몸을 지녔다.

몸은 전체적으로 짙은 갈색과 회색 등 여러 색이 혼재하며 마치 나무껍질을 연상시킨다. 눈은 노란색이며 머리에는 귀처럼 보이는 작은 것이 나 있다. 4월 중순이면 도심이나 시골의 나무 구멍에 둥지를 틀며 3-6개의 알을 낳는다. 4월 초가 되면 수컷은 암컷을 유인하거나 자신의 세력권을 알리기 위해 소리를 낸다. 보통 2음절과 3음절을 섞어서 내는데 ‘소쩍’, 혹은 ‘소쩍다’로 들린다. 번식이 시작되면 알을 품는 암컷에게 그리고 태어난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 나른다. 먹이는 곤충을 주식으로 하며 초 여름밤 둥지 주변에 있는 가로등에서는 나방이나 매미, 딱정벌레를 잡는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있다. 소쩍새와 유사한 종으로 큰소쩍새가 있다. 큰소쩍새는 눈동자가 붉은색이며 다리와 발가락에 털이 있는 것 외에는 소쩍새와 외형상 크게 차이는 없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소쩍새와 달리 ‘후후’하고 저음으로 조용히 운다. 개체수 또한 소쩍새

보다 적은 탓에 드문 텃새로 알려져 있다. 겨울철에는 북쪽지방에서 번식한 무리가 남하하여 월동하는 무리로 인해 그 수가 조금은 늘어난다. 최근들어 큰소쩍새 뿐 만 아니라 소쩍새 소리도 점차 듣기 힘들어지고 있다. 로드킬^{road-kill}로 개체수가 줄고 둥지를 지을 공간도 없어지고 또한 살충제 사용으로 말미암아 그 수는 점점 줄고 있다. 소쩍새와 함께 도심의 여름밤을 날 댈 솔부엉이도 점차 모습을 감춘지 오래다. 이제 밤의 포식자가 사라진 밤하늘은 많은 나방들로 잠시 떠들썩하겠지만 이마저도 도심의 숲을 덮은 살충제 구름 속에 사라져 가고 있다.

얼마 전 국내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쩍새의 로드킬^{road-kill} 건 수가 전체 동물 중 4위(102건)로 나타났다. 하지만 1, 2, 3위를 차지하는 새들은 서식 개체수에서 소쩍새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우위에 있는 멧비둘기나 까치이므로 서식 개체수 대비 로드킬 건수를 비율로 따지자면 소쩍새가 가장 높은 수치일 것이다.

특히 전국 산림에서 가장 흔하게 서식하는 박새, 직박구리, 멧새마저도 발생 건 수에서 소쩍새보다 낮은 수치 나타낸다는 것을 볼 때 소쩍새가 로드킬에 취약한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곧 국내 서식하는 소쩍새 무리는 점점 더 줄어들어 종국엔 절종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소쩍, 소쩍하는 소리는 우리의 애환을 달래주기 보다는 이제는 자신의 어두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토로하는 소리로만 들린다. ▲

우리는 섯길을 택한 이들에게 빛지고 산다 2

박현희
사회과 교사



큰길도 예전에는 섯길이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빨간 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섯길로 새지 말라고 한다. 섯길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 존재로서 부여받은 운명파도 같은데, 그것을 부정하며 살라고 한다. 어른들 말씀 잘 들어 손해 볼 것 없다고 우리에게 충고한다.

우리 사회의 큰길, 즉 규칙과 질서가 사회에 자리 잡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사회에는 어떤 의미로든 더 큰 힘을 가진 자들이 존재할 것

이고,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그 질서가 불편의 진리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세뇌한다. 이 질서는 지배하는 우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좋은 것이야, 하고 말이다. 처음에는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억은 얼마나 얽박한지, 곧바로 질서가 지금과 다른 시절도 있었고 앞으로 다른 질서를 가진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 질서를 수용한다.

우리 모두 당연하게 생각하는 ‘큰길’ 가운데 하나는 학교이다. 어느 날 근대적인 학교 제도가 생겨났다. 이제 가르치려면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장소도 학교로 한정된다. 배우는 자격도 한정된다. 배우려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해야 하고, 반드시 지정된 선행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 배우고 싶지 않아도 배워야 한다.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배우는 일을 마치면 ‘졸업장’을 준다. 졸업장을 받으면 이력서의 학력란을 채울 수 있고, 그 항목이 뿌듯하게 꽉 차야 밥벌이가 가능하다. 학교를 둘러싼 이와 같은 질서는 우리에게서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학교는 인류 역사상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존재해 온 사회 제도인 반면에 가르침은 오래된 인류의 전통이다.

언어를 통해 선대의 유산을 후대에게 전수할 수 있었기에 인간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먼저 알고 있는 이라면 누구나 아직 모르는 이를

가르칠 수 있었다. 누구라도 배울 수 있었고 어디서든 배울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배우고 가르치는 데 국가가 정한 자격이나 커리큘럼 같은 것이 개입하지 않는 편이 더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큰길이라고 생각한 길도 옛날에는 샛길이었던 적이 있으며, 지금의 샛길이 나중에 큰길이 되기도 한다. 다만 샛길이 큰길이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가 필요하다. 인적도 없는 그 길에 이끌려 고생이 훨씬 보이는 선택을 한 이가.

샛길을 택한 이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다.

우리는 모두 샛길을 택한 이들에게 빚지며 산다. 아주 오래전 나무에서 내려오기를 선택한 인류의 조상 덕분에 우리는 인간으로 진화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나 한자를 쓰는 것이 인간의 정도를 걷는 일이라 누구나 믿을 때 한글이라는 샛길을 택한 이들 덕분에 오늘 우리는 모국어의 편리함을 누리며 산다. 일본 제국주의가 천년만년 갈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믿고 있을 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주의의 아성을 향해 돌진하던 독립운동가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 산다.

원래 정치는 다 그런 거라고, 우리가 언제 민주주의 해 본적 있느냐고 체념할 때 독재에 저항해 거리로 나섰던 사람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산다.

그런데 왜 빨간 모자더러 샛길로 새지 말고 큰길로 곧장 가라고 하는 것일까? 왜 샛길로 간 빨간 모자로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고생 안 한다.'라는 교훈을 얻으라는 것일까?

사실 우리에게 탑재된 샛길 유전자에 따라 '반짝' 뒤에 오는 근질거림의 명령에 따른다고 해서 그 끝에 고난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결국 빨간 모자는 늑대를 물리쳤고, 이제 누구든 마음 놓고 들판의 어느 길이든 갈 수 있게 되었다. 예쁜 꽃이 유혹하면 꽃을 꺾으러 가도 되고 산딸기를 따고 싶으면 따러 가도 된다. 빨간 모자 덕분에 세상은 사방 팔방으로 길을 내며 우리를 맞게 되었다. 고마워, 빨간 모자야. ♫



한국 발효차와 중국 발효차(보이차)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 교도



우리나라 차 마시는 인구는 단순 통계를 비교해 보아도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미미한 중에서도 중국차를 마시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문화의 현실에서 우리는 중국차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중국의 보이차는 그 나라 크기에 비례해 엄청난 양의 보이차가 여러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흑자들 중에 중국 보이차는 오래되면 무조건 명품차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또한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흔히 중국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쇼핑 매장에 가서 진귀한 보석인양 보이차를 진하게 우려서 주고는, 우리 나라에서 구입하는 금액보다도 많이 싸게 구입한다는 말을 믿고 사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한번쯤은 느껴보셨으리라 봅니다. 오래전에는 보이차 포장지 혹은 상자에 생산일자, 또는 유통기한 등이 적혀있지 않은 것이 많아서 부르는 연도가 해당 보이차 연도인양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일부는 구입하면 변질 되었거나, 건조 발효과정에서 빠르게 상품으로 만들고자 속까지 마르지 않아 습차 과정에서 일부러 수분을 증가시키거나 안 되면 카바이트(화학약품)로 익혀서 만든 보이차들이 만들어져 우리에게 수 십 년 된 차로 둔갑하는 실정 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운남 보이시에서 2007년도부터 '보이차 가공 기술 규정'에 보이차 포장에 상품명칭, 생산기업명, 주소, 월료산지, QS표기,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 12개의 내용을 반드시 표기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007년 이후 만든 보이차에 그전에 만든 차처럼

둔갑시키는 일도 허다하다고 하니 가격이 너무 싼 것도 너무 비싼 것도 의심을 해보고 구입해야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12가지 규정을 지킨 차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관세를 내고 정품을 수입 해오는 국내 판매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도 중국에서보다 저렴하게 좋은 차를 구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보이차 만큼 질 높은 발효차가 많습니다. 보이차와 같이 몸속 체지방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개선을 높이는 갈산성분이 보이차 만큼이나 충분한 함량이 들어 있다는 녹차연구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발효차라 하면 홍차, 백차, 황차, 미생물 발효차 등을 통칭한 것으로 산화 발효와 미생물에 의한 후발효가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발효차라 해도 발효법에 따라 갈산의 함량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녹차, 국내산발효차, 중국 보이차(생차, 숙차), 잣살발효차(생차), 우리 금화차(미생물 발효차)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동녹차연구소'가 만든 '햇별발효차(잣살차)'와 '금화차'는 중국의 보이차보다 갈산 함유량이 오히려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발효차와 중국의 보이차는 마시는 방법에서 다르며 우리 발효차는 행구지 않고서도 바로 마실 수 있지만, 보이차는 2회 이상 세차를 하고서 세 번째 우린 차부터 마셔야 합니다. 발효차는 너무 진하게 마시는 것이 카페인 성분으로 해로울 수 있어 첫 번째 우린 것을 마시지 않기도 하지만 보이차의 경우 약간의 불순물이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차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를 연구하는 관계자들과 많은 다인들이 앞으로 보이차와 우리의 발효차를 더 많이 비교해야 한다고 말하며 건강을 위해 안전성이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중국산 보다는 안전한 국내산발효차를 선택해 마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차는 기호음료이고 이론적으로 많은 견해가 있지만 결국 내 몸에 맞는 차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녹차를 마시면 좋다고 하지만 몸에 맞지 않는다면 발효차로 대체해 봄직도 합니다.

얼마 전 KBS아침마당 '화요초대석'이라는 TV프로에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차를 마셔야 하는 이유"를 인용해 보면

- 현대인을 공격하는 바이러스형 질환, 차를 마시면 예방된다.
-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 선정 세계 10대 식품 중 하나.
- 옛 차인들의 평균수명이 일반인의 평균수명보다 1.5배 이상 길었다는 사실
- 몸 건강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는 차

몸을 건강히 해 줌으로써 마음의 여유와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을 더해 주는 우리의 차로 행복의 씨앗을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



자석사 보살님들 봄소풍 갔어요

여순애
자석사 교도

2019년 4월 10일 자석사 보살님들과 정사님, 전수님이 봄소풍을 갔다 왔습니다. 처음 계획은 벚꽃 만발한 경주 보문단지를 걷는 거였는데 일정이 바뀌었어요. 전날 비로 꽃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 계획은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고, 즉석 조치로 복숭아꽃을 보러 간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전 한 번도 복숭아꽃을 본 적이 없어 무척 궁금했죠. 거기애다 생각지도 못한 삼사 순례도 곁들였답니다.

제일 처음으로 포항 오이사에 도착했는데 새싹이 옷을 입은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대웅전은 단층이 바랜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당 가득 연등이 달려있고 비가 조금 내리는 산사의 운치는 너무 좋았습니다. 스님께서 채를 올리고 계셨는데 문이 삐그덕 거려 기도 방해가 되지 않았나 조심스러웠지만 절에 대한 푸근함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천에 도착해서 끝없이 펼쳐지는 복사꽃을 보았습니다. 분홍꽃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전수님이 갑자기 근처에 있는 딸기 하우스 밭에 내리시더니 딸기를 사시는 거예요. 저도 조금 샀는데 집에 돌아와서 먹어 보니 봄내음이 느껴졌습니다. 영천댐 가는 길에는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꽃을 보는 기분은 흥겨웠습니다. 묘각사란 절을 가는데 너무나 굽이굽이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뭘가 있길래.....’

아담한 절이 있었고 바라보는 산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멋있었습니다. 차방이 있어 차도 마실 수 있도록 해놓아서 다들 여유롭게 차 한 잔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강 대흥사란 절에 들렀는데 이것저것 많은 볼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식이 많이 없는 난 전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이해하고 왔습니다. 다른 절에서는 보기 힘든 밀교사원의 특징들도 엿볼 수 있는 절이라고 하더군요.

저녁은 안강에서 소문난 고디탕을 먹었습니다. 주된 음식뿐만 아니라 반찬도 너무나 정갈하고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가득 행복을 담고 왔습니다. 즐거운 여행길을 만들어주시고 하루 종일 운전을 하신 정사님 감사합니다. 보살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마음을 열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

큰 선언의 뒷면에는

법일
수인사주교



큰 걱정거리가 있는 한 사람이 이 걱정거리가 잘 해결되면
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어찌 어찌하여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었다.

그는 자신의 선언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누가 그 많은 돈을 선뜻 내놓겠는가?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 냈다.

그는 자기의 집은 은전 한냥에 내놓고, 그 집과 함께 사는
조건으로 고양이를 은전 만냥에 내놓았던 것이다.

결국 그 집은 한냥에 팔렸고 고양이는 만냥에 팔렸다.

그는 약속대로 집을 판 돈 은전 한냥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고양이를 판 돈 만냥은 자신이 가졌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만세”

불행은 눈썹과 같다

한 여자가 길가에 주저앉아 딸의 죽음을 통곡하며 울부짖
고 있었다. 그녀의 통곡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과 동정을
끌었다. 마침 수행승 둘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보고
는 말을 주고 받았다.

“울부짖는 저 여인보다 오히려 달래는 사람들이
더 안됐지 않은가?”

“그렇군, 저 여인은 자기 불행의 원인과
자신의 의미, 그 불행에서 멀찌감치 벗어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사람들의 불행은 눈썹과 같아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 떨어져
나간다. 🙏



회향이란 자기가 닦은 공덕을 되돌리는 것이고, 발원은 발기서원(發起誓願)의 줄임말로 원을 발하고 맹세를 일으켜 어떤 일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불보살님은 성불하기 위해 수행할 때 세운 원을 본원(本願)이라 한다. 이는 총원(總願)과 별원(別願)으로 나눌 수 있다. 총원은 모든 불보살들의 공통적인 서원으로서, 사홍서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가 범회의 식에서 매번 사홍서원을 하는 것도, 이러한 결의를 실천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미에서이다. 그 다음은 불보살마다 각기 세운 원이 있기 마련인데, 이를 별원이라 한다. 예를 들어 아미타불의 48대원을 비롯하여, 약사여래의 12대원, 보현보살의 10대원 등을 가리킨다.

흔히 극락왕생 발원은 개인의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극락왕생 발원은 성불과 중생교화, 즉 대승보살의 실천과 맞닿아 있다. 극락왕생을 발원한 사람은 반드시 몸과 마음과 뜻이 잡되지 않고 염불수행에 전념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게 되며, 나아가 모든 중생의 안락과 이익을 바라게 되기 때문이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그대들은 마땅히 공덕의 근본인 선을 심어야 하며, 항상 은혜와 자비를 베풀며, 추호도 불법의 도리에 어긋나지 말아-

야 하느니라. 그래서 능히 인욕하고 정진하여 항시 마음을 청정히 하고, 지혜로써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여, 더욱 공을 쌓고 선을 닦아야 하느니라.” (무량수경)

마음을 바르게 하고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것은 한량없는 공덕이 된다. 무량수경에서는 ‘현세에서 다만 하루만 계율을 지닐 지라도 극락세계에서 백 년 동안 선을 닦는 것보다도 더 낫고, 다만 열흘 동안 선을 닦는다고 해도 다른 부처님의 국토에서 천 년 동안 선을 닦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고 하였다.

극락세계에서는 누구나 많은 선만을 쌓고, 불국토에서는 자연히 모두가 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의 바다인 이 중생세계가 사실은 공덕을 쌓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

안온

安穩

조용하고 편안함 - 안화(安和)
날씨가 바람이 없고 따뜻함 - 안화

모든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하며 평온하게 된 열반의 상태

불교 경전에 많이 나오는 말이다. 법화경의 여래수량품(如來數量品)에 “중생들의 겁이 다해서 큰불에 타더라도 나의 이 국토는 안온하여 천인이 항상 가득 차리라.” 고 했듯이 부처가 머무는 곳은 안온하다고 한다.

안온이란 안락하고 평온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법화경 비유품(譬喻品)에 “세존께서 설하신 미증유의 법을 듣고, 모든 의심과 후회를 끊고 몸과 마음이 태연하며 쾌히 안온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했다.

이런 뜻에서 편안하고 조용한 것을 일반적으로 안온이라고 말한다. 🌱



“소리는 들리는 순간에 바로 사라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고 하셨다. 이것의 본 성품을 바로 파악하는 수행자는 소리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왜 안 좋은 소리, 기분 나쁜 소리, 비난이나 모욕의 말들은 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계속 남아서 괴롭히는가? 소리는 이미 사라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소리의 본 성품을 파악하지 못한 무지한 마음은 계속 환상을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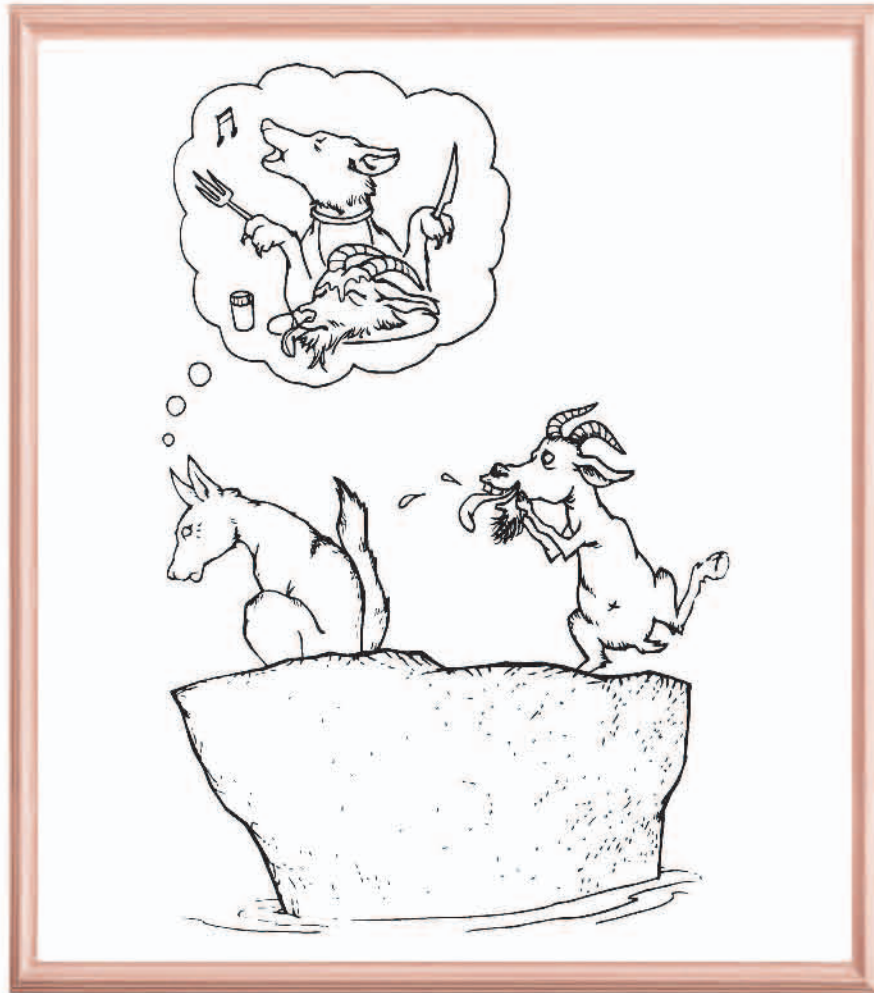
이러한 것들이 세속의 인간들의 성품이다. 화내면 화내고, 기분 나쁘면 악에 담긴 말을 하고, 상대방까지 기분이 나빠지길 은근히 바라며, 좋으면 좋아하고, 거기에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 이득, 손해, 칭찬, 비난, 명예, 모욕, 행복, 고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세속인 들의 마음이다.

상대가 화가 나서 화를 내면 낸 거지 거기에 뭐 그리 대단 할게 있는가? 그가 못 참아서 소리를 지르면 또 그뿐인 것이다. 소리를 지르는 순간 벌써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는가.

- 아산 교살라 사야도(미얀마 쉐우민수행센터 큰 사야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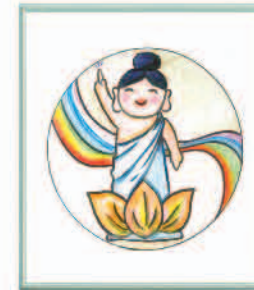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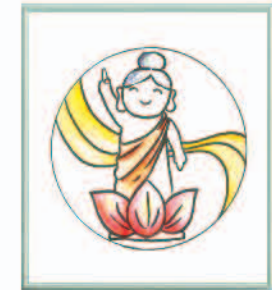


*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호 독자 솜씨



▲ 서울 오승현



▲ 서울 일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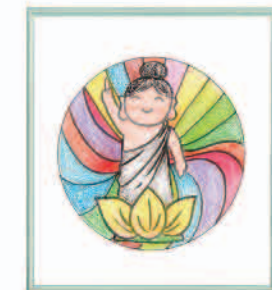
▲ 서울 오채원



▲ 서울 오현준



▲ 서울 강선아



▲ 서울 이유정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이메일 : news@chongji.or.kr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홍지중 홍보실
각 사원 주교님께 전달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발행일 총기 48(2019)년 6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 ~3
팩스 02-552-1082

불자님의 사연을 모읍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정자	강민두	곽노선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은숙
김종철	김희원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유광자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장정원
장승엽	장민정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최재실	한미영
한영희	허지웅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행일 총기 48(2019)년 6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 ~3
팩스 02-552-1082

불자님의 사연을 모읍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를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정자	강민두	곽노선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은숙
김종철	김희원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유광자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장정원
장승엽	장민정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최재실	한미영
한영희	허지웅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이 지나가고 있다.
내가 부모가 되고 나서 부터는
푸르고 청명한 5월이 피곤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5월로 변해버렸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으로 육체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5월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번 5월은 새롭게 바꾸었다.

아이들과 함께 5월을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을 같이 세웠다.
같이 계획하고, 함께 놀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아이들도 형식적인 선물보다는
부모와 함께 한 시간들을 더 좋아했고,
부모님께서도 손자들과
자식들이 쓴 손편지를 읽고 감동하셨다.

부모님께는 감사패를 제작하여 전달하였다.
이번 5월은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서로 뜻깊은 기념일로 함께 보냈다.
나에게 새로운 5월을 선사했다.

6월호



마음은 제법^{諸法}의 전도자다.
마음이 주인이고 제법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 만약 사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수레바퀴가
수레를 끄는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고통이 따를 것이다.

- 법구경 -